

2장 : 교회 안의 당파와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1장)

I. 교회 안에 당파 문제

1. 고린도교회의 네 개의 당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1) 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겼을까?

사실 이 네 명은 고린도교회에서 당을 만든 인물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주요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① 바울파 - 대체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속했을 것이다.

② 게바파 - 대체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③ 아볼로파 - 아볼로파에 대해서 알려면 아볼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고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의 사람이었다.(행18:24-19:2) 성경의 지식과 말씀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유대인이 감당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

④ 그리스도파 - 성서주석학자들 사이에도 그리스도파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일어났다. 대체로 이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모두를 빈정거리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무리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2) 왜 사람들은 당을 만들었을까?

3) 바울은 왜 많은 이야기 중 세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은 두 사람(그리스도보와 가이오) 밖에 없다고 한다. 바울이 제한적으로 세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이 이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감사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 당파의 지도자들이 자기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어 가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풀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세례의 본래 의미를 잃고 세례를 단순히 당파 확장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과 유사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용한다. 이러한 행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II. 교회의 문제의 첫 출발점: 십자가의 도

고린도교회는 당파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였다.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 답이 “십자가의 도”다.

1. 십자가의 도: 멸망 받는 자에겐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

1)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표준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함, NIV: the message of the cross로, 헬라어로는 “ $\lambda\omicron\gamma\omicron\sigma\sigma$ ”로)

2) 십자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십자가는 당시 사회의 사형 틀이었다. 이것은 사회에 극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문제는 십자가를 졌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죄로 인해 진 것이다. 살인을 해서, 강도짓을 함으로, 국가의 문란을 일으킴으로 진 것이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자신의 죄로 진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한 적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①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편의 강도의 십자가의 공통점

강도와 예수님은 둘 다 살기 위해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죽기 위해 살지는 않았다.

②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편의 강도의 십자가의 차이점

강도 -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음으로 살려고 했다.

예수님 - 자신의 목숨을 타인에게 줌으로 살려고 했다.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시각에선 미련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멸망을 받는 사람이라 말한다. 이유는 강도는 타인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음으로 끝이 난 삶을 산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타인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았고 결국 예수님도 살아난다. 이 삶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받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3)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전도: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주길 바랐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이신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다고 생각했다.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깨달음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고...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려고...

둘째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안에서 된 일이기때문에...

①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구원 받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됨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서 일어남을 보였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기 위해선 지혜가 발동된다. 온갖 머리를 사용한다. 해도해도 안 되면 그때 인간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한다.

믿음은 자신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대상을 의지할 뿐이다.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상을 찾지 않는다. 대상을 찾으면 그를 의지해야 한다. 문제는 인생이다. 이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로 가득찬 세상, 어둠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은 결국 어둠 안에 있을 뿐이다. 오직 주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

문제는 이때부터이다. 믿음으로 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보여줄 수가 없다. 믿고 나아가야 뭔가 일어난다. 그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때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배울 점)

1.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른다고 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으로 볼 땐 미련하다. 누군가를 위해 산 사람을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타인도 살리고 자신도 산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변을 희생시킨다. 주변을 희생시켜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내가 행복한 것 같은데 주변이 다 고통 받으니 결국 자신도 고통을 받는다. 십자가의 도는 이것을 말

한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만 세상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부활을 경험될 것이다.

2. 고린도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당을 만들었을 때 그 교회는 분열되었던 것이다. 교회 안에 당이 있을 순 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임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박힌 자들처럼 타인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3.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자랑은 우리의 지혜도, 놀라운 표적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